



2024년 창원시 수필공모전

# 「I love 아이」

수상작품집



창원특례시  
CHANGWON SPECIAL CITY

2024년 창원시 수필공모전



# 「I love 아이」

수상작품집



## 차례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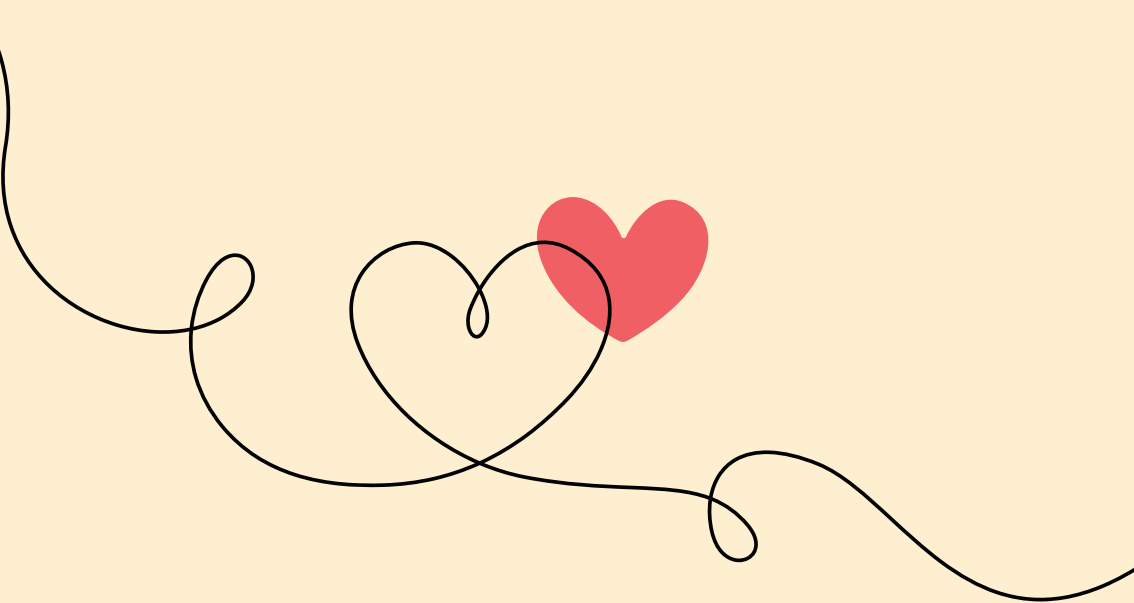
- 우리는 셋째를 가질 수 있을까? | 박세진 ..... 01

### 최우수상

- 루루예찬 | 김현옥 ..... 09

### 우수상

- 오월의 장미공원에서 | 김병길 ..... 15
- 나는 행복한 세 아이 엄마다. | 박새봄 ..... 21
- 너와 나의 성장 | 전은지 ..... 27



## 장려상

- 작은 해리가 가져다 준 커다란 행복 | 김정민 ..... 33
- 함께 자라는 우리 | 김주희 ..... 41
- 결혼이란 제도에 묶일 수 있을까? | 김주희 ..... 47
- 학부모라는 의자의 자리 | 김해민 ..... 55
- 동앗줄(나의 동앗줄) | 윤주리 ..... 65
- 나를 살아가게하는 힘, 가족! | 정선희 .....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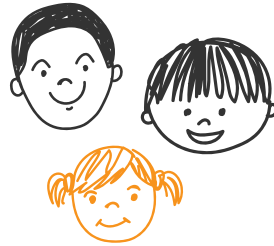
우 리 는  
셋 째 를  
가 질 수  
있 을 까 ?



박 세 진

# 우 리 는 셋 째 를 가 질 수 있 을 까 ?

대 상 | 박 세 진



나는 소방관이다.

3교대 근무를 한다.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나면, 하루를 자고, 하루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쉬는 패턴을 반복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서, 매일 위험과의 싸움을 경험하고,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달려가 도우면서, 내 일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내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게 가장 큰 보람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 다른 누구보다도 내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을 아내이다.

나는 두 아이의 아빠다.

두 아이는 모두 아들이다. 소방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다가, 40대 중반에 결혼하여 19개월 터울로 두 아들을 낳고 내 가정도 지키고 있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내 삶은 그 전과 180도 달라졌다. 그것은 '나와 일이(소방관

으로서 어려움에 부딪친 국민을 지키는 일) 중심인 삶'에서 '나의 가정(아내와 두 아들을 가장으로서 이끌어야 하는 일) 중심인 삶'으로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은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직장으로 출근하는 기분도 든다. 24시간 근무인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여 녹초가 된 몸으로서 집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꿈꾸는 것은 사치이자 꿈같은 이야기이다. 실상은 혼자서 꼬박 24시간을 아들 둘을 돌보느라 녹초를 넘어 가루가 된 아내를 잠시라도 쉬게 하고, 아내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제2의 출근'(제2의 출근이라 쓰고 진짜 출근이라고 읽는다) 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소방관 일이 어린 두 아들을 동시에 돌보는 일보다 편하다. 소방관 일은 대기가 많고 출동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서 긴장된 상태여서 힘든 것이지, 정말로 힘든 비상 출동은 많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지만, 실제로 그리 빈번하게 힘든 일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아들 둘을 둔 가정에서 아빠의 일은 늘 긴장인 동시에 비상 상황이다. 100일이 안 된 아기는 아직 밤에 통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큰 애도 자다가 울면서 깨는 것이 빈번하기에 퇴근 시간이 없다. 소방관은 퇴근 시간이 있지만 아빠는 퇴근 시간이 없다. 특히나 아들 둘인 아빠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나는 영우 아빠다.

박영우는 두 번째 생일에 두 달이 모자란 우리 첫째 아들이다. 깨어있는 시간 언제나 열심히 움직이고, 때론 과격할 정도로 소리도 지르고,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기저귀에 응가를 하는, 건강하게 자라고 밥도 잘 먹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이다. 하지만 엄마, 아빠 외에는 몇 가지 단어만 말할 수 있기에 아직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능이 높은 고등 생명체라고 여겨지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특히나 영우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만 해도 영우는 세상 키우기 편한 아기였는데, 동생이 생기고(정확히는 엄마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굉장히 자주 아파서 입원도 두 번 하고, 밥을 잘 안 먹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키우는데 이전과 달리 에너지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아기가 되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소리 지르거나 생때 부리면서 뺨대면 진심으로 사람보다는 짐승만 같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예전처럼 가져달라는 말 못 하는 아기가 행할 수 있는 강한 자기표현이자 최대의 시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다. 하지만 동생이 생길 것 어찌할까. 가끔 동생을 쓰다듬어 주거나 누워있는 동생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참으로 흐뭇하다. 영우도 자기중심에서 달라진 우리집 풍경에 점점 적응해 나가며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과 놀면서 잘 지내리라 믿는다.

나는 선우 아빠다.

박선우는 얼마 뒤면 생후 100일이 되는 우리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첫째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첫째를 키우며 든 생각과 경험이 떠오르고, 신기하게도 형제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비교하게 된다. 선우는 형과 비교해서 더 키우기 쉬운 아이이다. 영우도 동생이 생긴 이후에 좀 달라졌지만, 선우는 현재까지의 선우는 영우 이상으로 얌전하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선우는 잘 생겼다. 첫째 영우는 세상 귀엽지만, 막내 선우는 참 인물이 좋다. 아버지로서 잘생긴 내 아들을 보고 있을 때의 흐뭇함은 참으

로 뿌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다. 굳이 설명하자면, 뭐랄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존재함이 우수하게 확인된 느낌이고, 언젠가 죽어도 나의 유전자가 남아서 나를 기억해 줄 것이란, 한 인류로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를 훌륭하게 성공시킨 기분이다. 이런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경제적 면이 더 펍팍해진 면이 있지만, 더 큰 행복이 함께 우리에게 왔음을 매일 일상에서 느낀다.

아내는 교사이다.

두 갓난아기를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연달아 출산한 아내는 길고 긴 장기 육아휴직 중인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정한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최고의 엄마이자 아내이다. 아내의 지혜와 희생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그녀를 점점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의 수가 외양적으로 더 많아지고, 구성원 각자의 내면이 더 성장하고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이끈 우리 가정의 중심은 실로 아내이다.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한 가정 만들기를 두려워하며 결혼을 망설였던 노총각인 나란 사람만 보고 결혼의 세계로 이끈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우리 영우를 낳아준 사람도, “둘째는 없다.”며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나를 이상의 세계로 이끌어 세상에서 가장 인물 좋은 우리 선우를 낳아준 사람도, 40대 후반 길에 둘째를 낳은 나를 포함하여 3남매를 (내가 막내) 두었지만 여태 손자·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을 준 사람도, 마지막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후

외로움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싫고 가족이 싫었던 황량한 나에게 원래의 가족을 찾아주고 나만의 새 가족을 만들어준 사람도 아내이다. 아내는 내가 출근하면 24시간을 꼬박 혼자서 아들 둘을 보면서 집안의 밀린 살림도 한다. 내가 퇴근하면(제2의 출근) 그래도 쉬지는 못하고 같이 하지만 나는 결코 도와주는 것이지 아내를 앞서서 가사 분담이나 육아를 하진 못한다. 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나, 우리 부부는 100일이 안 된 둘째 아들을 재워놓고 요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한다.

우리는 셋째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5번째 가족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둘째까진 나를 설득해서 가정의 완성을 이루었던 아내가 정작, ‘아이가 많아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임신·출산·육아로 생긴 경력 단절’을 이루로 약간은 망설이며 반대한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중심인 지혜롭고 고마운 아내의 뜻을 따라왔기에 현재로서는 우리 가정에 셋째 아기의 축복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내 진심을 얘기하자면, 나는 “셋째가 딸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낳고 싶다.”라는 말을 아내에게 자주 말하곤 한다. 정말 내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닮은 막내딸 아이 한 명을 간절하게 낳고 싶다. 하지만 솔직하게 그것은 욕심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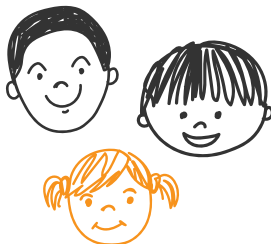
우선은 결혼 전에 나 혼자 살던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불과 3년여 만에 4인 가족이 살게 되어서 아기들 장난감과 늘어난 사람의 물건들로 현재 우리집은 매우 비좁다. 곧 남자아이 둘이 자라면 방방 뛰어다닐 텐데 부모로서 미안하게도 뛰어다닐 공간이 나오지 않기에 다자녀를 키울 넉넉한 수납공간을 가

진 넓은 집으로 이사가 시급하다. 그러하기에 친구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집과 이사 이야기다. 내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잘 벌어야 할 텐데 좋은 직업을 가진 아내를 쉬게 하고 혼자서 외벌이로 늘어난 식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한 순간이 가끔 있다. ‘훗날 연속하여 자녀를 낳고 육아한 아내가 현업으로 복귀하였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마치 군대를 면제받은 친구가 내가 제대한 뒤에 보니 더 빨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상사로 있었던 것처럼 ‘자녀를 낳지 않은 미혼이나 무자녀이거나 육아 휴직을 쓰지 않은 동료에 비해 훗날 경력이나 승진에 손해를 보진 않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이 가끔은 가정에서의 행복감을 누르고 불쑥불쑥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내 생일은 어린이날이다.

그렇다. 내 생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인 것처럼, 나는 아이를 태생적으로 좋아한다. 가능하다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면, 우리는 공무원 부부로서 저출산 해결의 롤모델이 되어 2남 2녀까지는 생각이 있다. 당연히 형편만 된다면 셋째를 가지고 싶다는 말이다. 비록 여전히 우리 부부는 ‘우리는 셋째를 가질 수 있을까?’란 질문을 가슴 깊숙이 남겨둔 채 해답을 풀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두 아이를 가지고 낳고 기르며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순간을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그 행복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생활 전반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의 지지와 이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며 초보 부모에서 조금 더 능숙한 부모로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다보면 마침내 셋째를 가질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가정에 막내딸 아이

의 우렁찬 웃음소리까지 더해져, 우리 가족의 사랑과 지지로 자라는 셋째 아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 모두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저출산 극복과 인구 성장에도 자그마한 보탬이 되어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에 불을 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우수상

루 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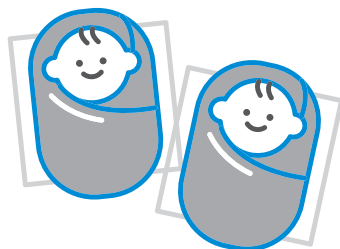
에 한

---

김 현 옥

## 루 루 예 한

최 우수 상 | 김 현 옥



딸이 아기를 낳았다. 게다가 쌍둥이다. 고요하던 집이 시끌벅적해졌다. 식구들의 마음이 상기되고 발걸음이 빨라지니 집을 떠도는 공기마저 들떴다. 아기를 잠자는 시간에 우리는 식사하고 쉬고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이들의 기운은 마른 숲에 내린 찬이슬 같았다. 꽃 피우기를 망설이며 주저주저하던 호접난이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고 기린꽃이 무더기로 쑥쑥 자라고 수년 간 잠을 자던 긴기아난이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꽃을 피웠다. 이 무슨 조화인지, 집안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깨어났다.

태어난 작은 생명체는 신비를 담은 까만 눈과 꽃잎을 닮은 작은 입술, 조그맣고 하얀 손과 보들보들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다. 꼭 왼 손을 펼치니 조그만 손바닥에 선명하고 또렷한 무늬 세 줄이 새겨져있다. 하이파이브를 한다. 멋지게 살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눈망울은 어둠속에서 빛이 났다. 오래전,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모래위에 떨어지던 별빛을 본 적이 있다. 촘촘히 박혀있던 별, 눈에 익은 그 빛이었다.

태열이 지나고 나니 하얀 피부가 드러난다. 밀도 높은 피부는 아무도 밝은 적 없는 태초의 바닷가모래처럼 고요하게 빛난다. 손을 갖다 대기도 아까워 바라만 본다. 목욕을 끝낸 아기의 얼굴에 싹싹, 로션을 발라주는 딸의 손을 바라본다. 딸의 손바닥이 부럽다.

가랑가랑 숨을 쉴 때 개미굴만큼이나 작은 콧구멍에 먼지보다 조금 큰, 하얀 코딱지가 들쭉날쭉하다. 새끼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아 속만 답답하다. 아기용 면봉을 들고 온 딸이 조심스럽게 집어넣어 살살 돌린다. 재채기를 하는 아기의 콧구멍에서 툭 튀어나온 코딱지가 반갑다.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기를 기대하듯 잠자는 아기 옆에 앉아 배냇짓을 기다린다. 그 웃음은 맛보기영화처럼 짧지만 회오리바람처럼 강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근심마저 한순간에 날려 보낼 것 같다.

조막만한 얼굴은 도장 찍은 듯 똑같아 구별이 되지 않았다. 난감해하던 딸이 아기 몸의 이곳저곳을 살피보았다. 보드라운 머리카락 사이의 하얀 가마가 조금 다른 곳에 있다. 한 아기는 정중앙에, 또 한 아기는 오른쪽 옆으로 살짝 비껴 앉았다. 이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삼신할매의 배려인가. 감사하다.

조금 자라니 웅알이를 한다. 알이들을 수 없는 말로 최선을 다해 이야기한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말이 궁금하다. 웅알이를 하다 소리가 커지며 울음으로 바뀌기도 한다. 눈물이 그렇그렁 맺혀있고 금방 흘린 눈물이 볼 중간쯤 내려가는 중에도 활짝 웃을 수 있는 투명한 그 마음을 만져보고 싶다.

조그맣고 통통한 아기의 발을 본다. 보들보들한 발바닥을 간지럽히니 움실 움실 발가락을 움직인다. 한 번도 땅을 짚어 본 적 없는 발바닥이다. 일 년쯤 후면 걸음마를 시작하겠지. 저 조그만 발로 얼마나 많이 걸을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을까. 가장 아래쪽에서 커다란 몸을 지탱하느라 지치고 투박해진 내 발을 본다. 만 원에 다섯 켄레나 주는 싸구려 양말 한 묶음을 사면 몇 달 너끈히 살아가는 착하고 너털너털한 발바닥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인사한다.

아기를 낳으니 산후 도우미 두 분이 아기를 돌보러 오신다. 지자체에서 보낸,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은 분들이다. 도우미 선생님은 산모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를 목욕시키고 우유먹이고 잠재우는 일을 도맡아했다.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던 일은 이제 옛말이다.

백일이 지나니 돌봄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은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콩이며 쌀을 넣어왔다. 흔들며 소리를 들어보라고 한다. 콩이 들어간 통에서 ‘드럭드럭’ 큰 소리가 나고 쌀이 들어있는 통에서 ‘짜룩짜룩’ 소리가 난다. 아기들이 신기하게 바라본다. 오후에는 아기들을 데리고 나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부탁을 한다. “우리 아기들이 볼 수 있게 미끄럼을 좀 타줄 수 있니? 시소도 타 줄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미끄럼을 타고 시소도 타고 아기들에게 달려와 말을 걸기도 한다.

선생님은 아기들의 넓은 발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함께 가꾸어 튼실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 돌봄 선생님은 젊은 부부에게 희망이다. 나도 그 시간에 숨고르기를 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선생님과 바통터치를

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딸이 아기를 낳으니 사위 혼자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때에 사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고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정책이 뿌리 깊게, 오래 이어지면 좋겠다.

햇살이 좋은 날,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워 산책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와 아이들 앞에 선다. 할 말을 잊고 눈부신 듯 바라보았다. ‘귀엽죠?’ 내가 먼저 말을 붙인다.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볼이라도 한 번 만져보시라 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모르는 사람이 아기를 오래 바라보거나 만지기라도 하면 젊은 엄마들은 기겁을 한다. 지나가다 마주치는 아기가 예뻐 머리를 쓰다듬고 이름을 묻고 빠이빠이 하던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아파트를 끼고 흐르는 개울가를 지난다. 나무 위에 앉은 새들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성근 머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민들레 꽃씨를 훑, 붙어 날려 보낸다. 날아가는 씨앗을 아기들이 유심히 바라본다.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간다. 비눗방울은 눈앞에 잠시 머물다 홀연히 사라진다. 오늘밤 아기들은 무슨 꿈을 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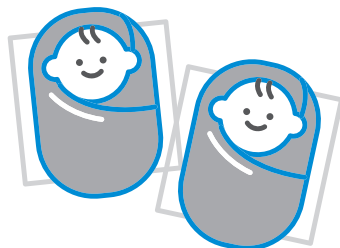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어린이 날, 형제로 만든 공룡인형 두 개를 선물했다. 공룡의 몸에는 도톰하고 보드라운 연두색 손수건이 매달려있어 아기의 작은 손으로도 너끈히 잡을 수 있고 눈에 잘 띄어 마음에 꼭 들었다. 딸은 아이 것이 바뀌지 않게 빨간색 실로 이름 첫 글자를 바느질 했다. 아기공룡의 턱 갈퀴에 ‘N, H’ 이름이 새겨졌다.

퇴근한 사위가 웃으며 말한다.

“N H 농협이야?”

딸과 내가 깔깔 웃는다. 아기들도 따라 웃는다.

쌍둥이의 이름은 나루, 하루, 둘을 함께 부를 땐 ‘루루’. 그래서 우리 집은 루루家가 되었고 나는 공짜로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오 월 의

장 미 공 원 에 서



김 병 길

## 오 월 의 장 미 공 원 에 서

우 수 상 | 김 병 길



햇살이 따사로운 5월의 어느 날, 우리 다섯 가족은 모처럼 장미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마는 휴일이 거의 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낸 것이었다.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일어나자마자 새처럼 지저귀는 세 아이의 기대감에 찬 목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실망하게 할 수 없어 졸린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켜다.

아침 일찍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한적한 잔디밭에 돛자리를 채 펴기도 전에 아이들은 달려 나갔다. “하늘아, 영광아, 우주야 같이 가야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이들은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제일 어려서 가장 많은 보호가 필요한 셋째, 4살 우주를 가장 먼저 붙잡으러 달려갔다. “까르르” 웃으면서 종종걸음으로 도망가는 녀석. 슬래잡기 놀이를 하는 줄 알았나 보다.

아직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 녀석의 올망졸망한 표정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 인사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신기할 나이. 펄럭이는 나비, 형형 색색한 장미들,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까지 다 말을 거는 듯 일일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우주의 손을 잡고 걸으면 온갖 곳에 다 한참을 멈추어 서야 한다. 우주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일까? 나는 그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주와 공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아닐 게다. 보통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성숙해진다. 과일이 여름 피약별을 견디면 점점 단맛을 내듯이. 오히려 늙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각종 장미가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것도, 질식할 것만 같은 장미꽃 향기도 나에게에는 이미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늙었으나, 우주와 함께하며 세상을 경탄하는 법을 다시금 깨닫는다.

남자아이 둘이 신나게 뛰어다닌다 싶어 보았더니 한 명이 우리 집 둘째 영광이다. 상기된 표정으로 영광이가 말했다. “아빠,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친구는 김민호인데 나랑 동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김민호고요 8살이에요. 저는 상남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아빠랑 엄마랑 이혼해서 엄마랑만 놀러 왔어요.” 갑자기 엄청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놓고는 씹씹카를 물고 사라져 버렸다.

기분이 좀 이상했다. 부모님의 이혼이란 민호에게 있어 큰 아픔이었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민호도,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영광이도. 이걸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도 좀 이상하달까? 아무래도 민호는 엄

마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으니 저렇게 밝게 클 수 있었겠지. 저 둘은 그저 같은 나이 친구를 만나 함께 놀면서, 함께 웃고 떠들 수 있어서 좋았던 거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 금방 만났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어린이다. 언제부터일까? 내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사귀었던 것은.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영광이보다 더 클까? 아니. 내 속은 훨씬 좁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은 가면을 써서 이제 내가 가면인지, 가면이 나인지 모를 지경. 상대의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고, 이 만남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나도 모르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한참 바라보았다. 두 아이가 사라진 텅 빈 꽃밭을.

“아빠 이리 와 봐.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첫째 딸 하늘이가 나를 향해 손짓한다.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이 꽃들이 전부 달라.” “다 장미꽃 아냐?” 하늘이가 새초롬한 얼굴로 말한다. “아빠, 실망이야. 여기 장미는 저기 있는 장미랑 완전히 다르잖아. 색깔도 다르고 꽃잎 모양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여기 있는 장미꽃도 다 똑같지 않아.” 하늘이는 각각의 장미꽃들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흥분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들어주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 물어보았다. “장미들이 이렇게 다른 것이 하늘이에게 왜 중요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늘이가 말했다. “달라서 예쁘지 않아? 다 똑같이 생겼으면 나는 안 예뻐할 것 같아.” 하늘이는 웃으면서 또 다른 꽃밭을 향해 떠났다.

나는 품종이 다른 장미꽃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같은 꽃밭에 있는 같은 품종의 장미꽃도 하늘이는 다 다르다고 했다. 나는 똑같아 보였는데. 꽃송이들을 마음을 담아 자세히 살펴보니 보였다. 달랐다.

하나하나 다 다른 꽃이었다. 달라서 예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갑자기 가슴에 확 하고 와 닿았다.

우리는 모두 각자 각자다.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각자들이 모인 꽃밭이다. 같은 회사에 다녀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방에서 잠들더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이다. 달라서 불편하거나 달라서 나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예쁘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꽃밭에 심겨 조화와 아름다움을 뿜낸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자녀들이 꽃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도 꽃이라는 생각에 잠시 멍하게 웃었다. 그래. 못생긴 꽃도 꽃은 꽃이다. 다름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다름은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

세 아이를 아내와 함께 키워가면서 참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면 목숨보다 소중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다. 보석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저 아내와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면 되었다. 아이들이 하나, 둘, 셋 태어나면서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 나를 위해서 하던 고민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고? 너무 많지 않을까? 다른 집보다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도 고민이고, 아이들이 서로 다투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잘 풀어내는 것도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까도 고민이다. 먹이는 것, 입히는 것, 노는 것, 공부하는 것 등등 무엇이 고민이 아닌지를 말하는 게 오히려 쉬울 정도로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고민의 연속이다.

고민이 무지우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 무겁다. 내가 무언가 잘못 결정해서 우리 가족에게 결핍이나 상처를 줄까 봐. 내가 가족을 위해 혹시나 최선을 다

하지 못한 결과로 어려움이 생길까 봐 어깨도 가슴도 무겁다. 고민이 괴롭나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은 취소다. 절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그의 시가 말하고 있듯 ‘다만 하나의 몸짓’이 되기보다 꽃이 되고 싶다. 꽃밭의 울타리가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흐뭇하게 바보같이 웃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와서 말한다. “아빠, 밥 먹으러 와. 엄마가 도시락 맛있는 거 싸놔어. 빨리 와.” 오늘은 아이들에게 참 많이 배우는 날이다. 그래서 윌리엄 에드워즈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나 보다. 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중한 모습들을 배워야겠다.

돗자리 펴 놓은 곳에 갔더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민호와 민호 엄마도 같이 앉아 있다. 어느새 아내가 민호 엄마와도 친해졌는지 같이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오월의 아름다운 장미공원 돗자리 위에서 두 꽃밭이 하나의 꽃밭이 되었다.





나 는

행 복 한

세 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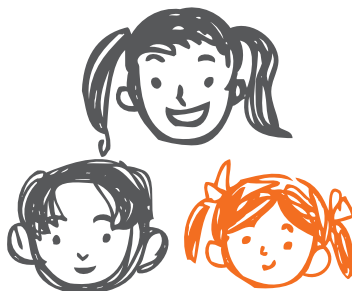
엄 마 다 .



박 새 봄

# 나는 행복한 세 아이 엄마다.

우수상 | 박새봄



나는 초등학교 자녀 3명을 둔 워킹맘이다.

결혼하고 원래 자녀계획은 2명이었다. 신이 축복을 내리신 듯 첫째 딸, 둘째 아들로 두 아이가 연달아 내 품에 왔고 행복한 4인 가정을 꾸렸다.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는 연년생 육아를 하며 '이제 내 인생 더 이상의 출산과 신생아 육아는 없다. 이 고생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생아, 아기용품들을 중고시장에 팔며 흥분하게 정리하던 그 어느 날.

매달 찾아오던 신호가 없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찾아오는 신호였는데 예정일이 하루, 이틀 지나니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설마하며 지나기를 일주일. 혹시나 하고 확인해본 임신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를 반기고 있었고, 그 두 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하늘이 무너진 듯 펑펑 울었다. '또 다시 입덧을 하고, 무거운 배를 움켜쥐고, 잠도 못 자며 신생아 돌보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거기다 연년생 첫째, 둘째는?'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

해지면서 눈물만 펴펴 났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왔더니 맑은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는 두 아이가 서 있었다. 첫째는 “엄마 꿈속에서도 보고 싶었어.”라며 나를 꼬옥 안아주었고, 둘째는 베시시 웃으며 내 품속을 파고들었다.

마음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생각해보았다. 두근두근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의 그 벅찬 감동. 내 몸 안에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뛰는 신비로움. 아빠 목소리를 들었을 때 꼬물꼬물 반응하는 태동의 놀라움. 그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막내는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그 축복의 시간을 두 아이와 함께하며 즐기기로 했다.

옛 속담에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임신, 출산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였는데 셋째 임신과 출산은 가뿐했다. 첫째 출산 때 배웠던 라마즈 호흡법을 되새기며 둘째 출산 때의 경험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세 번째 출산을 잘 마무리했고 예쁜 막내딸을 품에 안았다.

귀여운 막내딸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막내는 그저 숨 쉬는 모습만 봐도 기특하다. 저 쪼그마한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자그마한 입으로 젖을 먹고, 흑진주보다 더 까맣고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게 감동적이지 않은가.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기가 예쁜 줄 몰랐다. 짧은 수유팀에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그것만 해도 하루가 바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예뻐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첫째는 분명 예뻐할 것이다. 예쁘게 웃었을 것이고, 귀엽게 웅얼이를 했을 것이다. 그때는 내 자신이 ‘이 힘든 육아의 끝은 어디인가. 눈앞이 막막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

각에 아기를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없었다. 여유를 가지고 예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해 몰랐던 것 뿐이다.

아이를 둘, 셋을 키우며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라는 저서도 있듯이 처음 해보는 육아는 모든게 낯설고 서투르다. 서투른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잘 해보고 싶은 나머지 실수가 생기고, 욕심이 과해져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첫째는 생일도 빠르고 모든 게 또래보다 빨랐다.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기고 걷고 빨리 말하는 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다. 내 아이만 특별하다 생각했고 어디를 가든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아이에 거는 기대감도 커졌다. 기대가 크다 보니 조금만 못 미쳐도 실망도 컸고 아이를 다그치게 되었다.

그와 반대로 둘째는 생일도 늦고 뭘 하든 늦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발달사항도 다 느렸다. 첫째와 비교하며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을 가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수없이 고민했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무슨 일이든 내가 대신 해 주었다. 아이가 더 발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내가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졌다. 지금은 생일이 늦은지 발달이 늦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셋째는 걷는 게 조금 느려도 ‘나중에는 걸겠지. 기어 다니는 게 아직 편한가 보네.’ 하며 지켜보게 되었고, 말하는 게 조금 빠르면 ‘억지로 얹혀 학습지를 시키기보다 책이나 읽혀줘야겠다.’ 하며 다양한 책을 보여주었다. 셋째도 생

일이 12월이라 또래보다 키가 작지만 나중에는 클 테니 걱정하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행복하게 크면 되지 않겠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셋째는 걱정거리 하나 없고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한다. 자유롭게 키워서인지 막내는 유달리 밝고 애교가 많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나의 욕심이었고, 조바심 때문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면 뭐 어쩔까. 어차피 똑같이 걷게 되고, 똑같이 말하게 되고, 똑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빠르다고 우쭐 할 필요도 없고 조금 느리다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아이는 본인의 속도대로 잘 성장하고 있다. 부모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셋째를 키우면서야 알게 되었다.

요즘 세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면 어디를 가든 애국자라고 한다. 나는 그냥 내 아이들 잘 키우는 것 밖에 없는데 애국자라니 과분한 호칭이다. 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부모들은 나에게 존경스럽다고 한다. 나는 그냥 내 아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골고루 사랑을 줄 뿐인데 존경한다니 과분한 표현이다. 삼 남매를 키우기에 듣는 과분한 호칭과 표현이지만 싫지 않다. 나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된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은 육아 경험을 해보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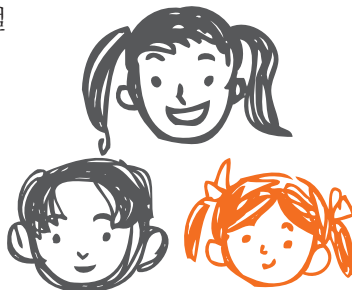
우리 삼 남매는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 살면서 100프로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내 얼굴, 내 목소리, 나의 손길, 나의 체온까지 나의 모든 것이 좋단다. 살면서 이런 짝 찬 사랑을 어디가서 받을 수 있

을까. 나를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은 3쌍이고, 지친 날 내 어깨를 주물러 주는 손은 3쌍이며, 사랑한다고 말하며 뽀뽀해주는 입은 3개다. 하나가 아닌 둘도 아닌 셋.

나는 세 아이의 엄마라 행복하고 내 인생 최고로 잘한 일이 세 아이를 낳은 것이다. 육아를 하면서 배우는 점이 정말 많다. 나 혼자 느끼는 감정 외에 아이와 함께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의 기쁨, 아이가 친구에게 상처받아 함께 느꼈던 슬픔, 사랑한다며 안아줬을 때의 행복, 아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함께 느꼈던 좌절, 세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의 분노, 아이가 나가서 다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여러 감정을 느끼고 아이들을 통해 여러 감정을 배웠다. 아이들은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주었다. 나도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다.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며 혼낼 것이고, 어질러진 집을 보며 화를 낼 것이고, 엄마는 공주님이야 하며 그려오는 그림을 보며 흐뭇해 할 것이고, 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할 것이며, 천사같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오늘도 왁자지껄 정신없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이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꼭 그럴 것이다.

나는 행복한 세 아이 엄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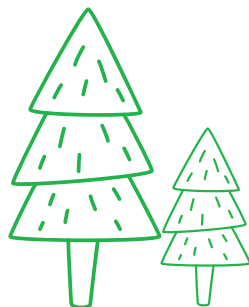
너 나 의  
성 장



전 은 지

## 너 나 나의 성장

우수상 | 전은지



P는 J가 되고, J는 P가 되었다. 그것이 육아였다.

어른들은 아이를 키우면 세계가 넓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했고, 그랬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다. 나의 일도, 우리의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에 있다면 둘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다 어느 날, 너와 나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우리 삶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딸 하나 아들 하나의 부모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삶은 좀더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넓어졌음을, 그리고 넓어지고 있음을 매순간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몇 해 전부터 MBTI가 대유행이다. 사람을 16가지 유형만으

로 재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경향성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했고, 나와 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꽤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종종 지인들과 흥미롭게 MBTI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MBTI 지표 중에서도 J와 P가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모래놀이를 하러 가서 출렁이는 파도 속으로 뱃다 뛰어들어가며, 비오는 날 물웅덩이를 지나치는 법이 없다. 또 밥을 먹다 어찌다 흘린 국물 한 방울에 짜증 섞인 울음을 왕 놓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내리는 비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대성통곡을 하기도 한다. 기다림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득한 기다림이란 아직 없다. 그런데 모래놀이를 하러 왔으면 모래놀이만 해야하고, 입고 나온 옷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통제적 성향의 J에게 ‘갑자기’란 없다. 수영복도 없고, 세면도구도 없고, 수건도 없는데 물놀이가 시작될 수는 없다. 비오는 날에 재미있어보이는 물웅덩이를 발견하더라도, 물웅덩이에서 놀기로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목적지까지 한눈팔지 않고 곧장 가야 한다. 한편 밥을 먹다 음식물이 옷에 튀어 더러워지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닐 뿐더러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대응하는, 융통성이 높은 P에게 세상 일이란 대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옷이 더러워지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닦아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갈아입으면 될 일이다. 놀이터에 가기로 했지만 비가 온다면 다른 재미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재미난 하루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 성향의 아이가 내 자녀라면 골치가 아프다.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고 매순간이 어렵다. 바다를 보고 신나서 뛰어드는 아이를 보고 ‘즐겁겠다’보다는 ‘어쩌려고?’가 앞서는 부모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답답할 뿐이고, 비가 와서 가기로 했던 놀이터에 가지 못한다고 온갖 짜증과 울음을 쏟아내는 아이를 보고 ‘속상하겠다’보다는 ‘왜 울지?’가 앞서는 부모는 유연하지 못한 아이가 염려될 뿐이다. 그렇다면 같은 성향의 아이가 내 자녀라면 수월한가? 그렇지도 않다. 내가 겪어냈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 또한 부모의 고민이 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손을 적셨던 식은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내 아이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또 너무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외려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기에, 내 아이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육아는 쉽지 않다. 재밌다. 끊임없이 생각해야하고 고민해야하기에 삶이 다채로워질 수밖에 없다. 아이가 없다면, 30년이든 40년이든 그간 살아온 나의 모습대로 내 삶을 이어나가면 된다. 그러나 아이가 내 삶에 끼어든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와 너무나 같은 자식새끼를 보면서 나의 과거와 소통하고, 나와 너무나 다른 자식새끼를 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세계는 넓어지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엄마, 괜찮아.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아이의 눈물이 아니라, 울음이 뒤범벅된 음성이 아니라, 한없이 가볍고 통통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희열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돈까스를 먹어야겠다며, 전날부터 설렘던 날이었다. 영업 시간도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식당 문은 열려있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의 눈치부터 살폈다. 그런데 ‘괜찮다’며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우리 아이는 우리를 닮아 J 성향이 강해서 예측했던 것과 다른 하루가 펼쳐

지면 아주 불편해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울음으로 언제나 이어졌었다. 아이는 어린이집을 무척 좋아했지만, 등원마다 눈물 바람이었다. 처음에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은가 싶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린이집이 불편한가,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은 건가……. 정말 온갖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이는 담임 선생님 손을 잡고 오롯이 들어서만 현관문을 통과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그래서 다른 반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자고 할 때면 눈물 버튼이 눌러졌던 것이었다. 심지어 다른 반 선생님이 좋아했지만 아이에게는 ‘등원=담임선생님과’라는 공식이 깨어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나 역시도 유년기에 그랬기에 아이의 불편한 감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들려주었다. 담임 선생님과 들어갈 수도 있고, 열매반 언니를 마중나오신 열매반 선생님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원장 선생님과 함께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매일매일 이야기했다. 울음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꽤 긴 시간이 이어졌다. 그렇게 여러 상황들을 알려주었던 것에서 아이가 스스로 여러 상황들을 상상해보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아이는 이제 제법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여전히 당황은 할지언정 더이상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성장했다.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성장에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채워지지 못했던 조각들을, 나의 아이는 다행히도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모

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지금의 나를 채워주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키워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주변 사람들과 이따금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를 키우며 ‘나’라는 사람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준비라고는 없이 핸드폰에 지갑 하나 들고 훌쩍 여행을 떠나던 P의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키우고는 1박 2일 여행에 캐리어가 3개, 4개였다던가? 여벌옷에, 슬리퍼에, 샌들에, 운동화에, 상비약에, 온도계에, 심지어 손톱깎이까지 챙겨갔으며 J보다 더 J스러운 여행 준비를 하고 갔다왔다는 우스개 소리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모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리고 아이와의 시간이 쌓이며 ‘나’라는 한 인간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아주 진지한 성찰적 이야기까지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나’라는 인간의 성장이다. 아이는 부모를 보며 배운다는데, 부모 역시 아이를 보며 배우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며 ‘나’와 ‘남’을 이해하고자 한다. MBTI의 대유행도 그런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은 재미있게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그런데 ‘남’은 ‘남’일뿐이기에 이해의 노력을 대단히 정성껏 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은, 특히 그 가족이 아래로 내려가 ‘나의 자식’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나의 자식’이기에 이해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매순간을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이해의 폭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수많은 ‘타인’과도 조금은 더 수월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가족의 탄생’은 아주 가치있고, ‘아이의 탄생’은 필수이며, ‘육아’는 모든 인류가 경험해야할 시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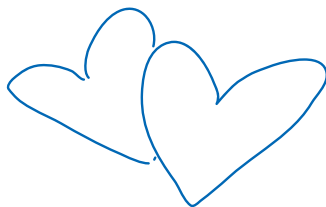


작은 해리가  
가져다준  
커다란 행복

김 정 민

# 작은 해리가 가져다준 커다란 행복

장려상 | 김정민



2023년 3월, 웨딩마치를 올린 29살의 나는 인생 만족도가 최상인 상태였다. 인생에 한번뿐인 웨딩드레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두 달간 5킬로 감량을 하여 어떤 옷이든 소화할 수 있는 몸이 되어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신혼살림을 꾸리면서 매주 놀이공원 가기, 캠핑장에서 불멍 하기, 퇴근 후 치맥하기 등 꿈꿔왔던 것들을 실현해나갔다.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태국 출국 직전 해본 임신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기 전까지…. 결혼 후, 자녀계획을 묻는 어른들의 말에 최소 1년 이상은 깨 볶는 신혼을 즐길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출국 직전 뱃속아기의 존재를 알고 태국으로 휴가를 떠났으나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여행기간을 보냈다. 비행기를 타서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초기에 임신인 줄 모르고 술을 마셨는데 태아에게 안 좋을 텐데….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었다. 옆에서 남편이 아

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해줬지만 얼른 한국으로 돌아가서 뱃속의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만 같았다.

“임신이 맞아요. 6주 정도 되었어요.”

귀국 후, 바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2시간여의 대기 끝에 들은 첫마디였다. 주변 친구들 중 결혼한 친구도 몇 없고 그중에서 아기를 낳은 친구는 더더욱 희귀했기 때문일까. 아기를 가지지 않을 생각은 없었지만 벌써 엄마가 될 자신은 없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전까지와는 180도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초음파 화면 속 심장이 뛰고 있는 태아를 보고 있자니 뭔가 모를 책임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가던 길, 아기의 태명을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하이’로 짓기로 했다. 그리고 철저한 금주와 물처럼 마시던 커피도 과감히 끊었다.

엄마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10달의 임신과정은 쉽지 않았다. 몸은 무겁고 몸살 걸린 것 마냥 컨디션도 별로였다. 반농담으로 매일 점심 먹으러 출근하던 나였지만 임신을 한 뒤로는 식당에서 나는 음식냄새에 토할 것 같았다. 미디어에서 출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어서 아기는 10달 동안 배에 있다가 뽕 하고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몸이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번기를 부여잡으면서 탄식했다. 엄마가 되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회사에 임신한 직원을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인력난인 우리 부서에서 그를 사용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

었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정시 퇴근이라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평일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고, 자연스레 저녁 차리기, 청소하기 등의 집안일은 모두 남편 몫이 되었다. 임신하면 엄마의 마음을 안다더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든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애를 둘씩이나 낳은 걸까..., 새삼 엄마의 위대함에 감탄했다.

고통스러운 입덧이 사그라들고 임신 중후기가 되자 불러오는 배로 인해 만성적인 허리와 골반 통증에 시달렸다. 배에는 회색 빛깔의 임신선과 징그러운 틈살이 자리 잡았으며 자궁이 커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날이 지속되었다.

혹독한 다이어트로 잠깐이나마 슬림했던 몸은 임신 중 20킬로나 불었다. 결혼 직후 다시는 살찌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왕창 사들였던 옷들이 하나도 안 맞았다. 샤워 후 거울을 볼 때마다 변한 나의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져 하루는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했다. 남편은 “출산하고 다시 빼면 되지. 그래도 내 눈엔 네가 제일 예뻐.”라고 위로했지만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졌는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12월 마지막 주, 같은 부서 직원들의 순산하라는 응원을 받으며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출산 휴가에 들어왔다. 그날 저녁, 남편이 그동안 아기랑 같이 출근하느라 고생했다며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와 아기 옷을 깜짝 선물로 내밀었다. 출산 전, 한 달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서 남편과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축하파티를 했다.

‘하이’는 엄마의 뱃속이 좋았던지 40주를 채우고도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유도분만을 시도했으나 12시간이 지나도록 진통이 걸리지 않았다. 나의 분만을 도와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을 더 끌어도 진행이 힘들 것 같다고 제 왕절개를 권유하셔서 고민 끝에 수술을 택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아침, 내 발로 걸어 수술실로 향하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하반신 마취를 한 후, 달달 떨고 있는 나를 향해 마취과 선생님이 “걱정 말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차가운 수술대의 감촉과 배에 칼을 댄다는 무서운 생각에 거의 반쯤 패닉상태였다. 오전 10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나 지났을까. “응애—”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10시 9분. 딸입니다.”

아기의 땃줄을 정리한 후, 간호사 선생님이 갓 태어난 아기를 내 볼 옆에 마주대어 첫인사를 시켜주었을 때, 세상에 아기와 나, 단 둘만이 남은 것처럼 컷가에서 종이 땡땡—하고 울렸다.

벅차올랐던 첫 만남의 감동도 잠시, 신생아 육아의 현실은 냉혹했다.

“응애—응애애—”

매일 밤, 딸이 깨지 않고 통잠을 자기를 빌면서 잠자리에 들지만 헛된 기대였는지 오늘도 어김없이 해리의 울음소리와 함께 힘겹게 눈을 뜬다. 반사적으로 옆을 바라봤을 때 시계는 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해리가 울다가 잠에서 깨버리기에 재빨리 몸을 돌려 침대를 벗어났다. 주방으로 나가 유축해 둔 모유를 데우면서 육아휴직 하면 회사가 그리울 거라던 선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 “그럴리가요.”하며 웃어넘겼던 나 자신

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허리 아프고 몸이 무거워서 얼른 아기를 낳고 싶다고 했었는데... 임신 중에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말이 맞았다.

‘새근새근’ 다행히 늦지 않았는지 해리가 모유로 배를 채우고 다시 잠들었다. 아기의 잠든 얼굴을 마주할 때, 육아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순간의 행복은, 수많은 밤의 피로와 걱정을 모두 잊게 해 준다.

150여 일 남짓 아기를 키우다 보니 기쁜 순간도, 가슴 철렁한 순간도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예기치 않은 해리의 행동으로 초보부모의 혼을 쏙 빼놓았던 이름하야 ‘100일의 똥’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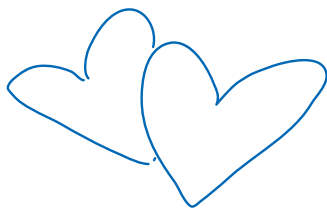
그 일은 양가부모님과 함께 해리의 100일 기념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던 터라 주문한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정차했는데 잘 놀고 있던 해리가 갑자기 짜증 섞인 울음을 터트리는 게 아닌가. 어림짐작으로 배가 고픈 때가 된 것 같아 젖병을 준비해서 뒷좌석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구수한 해리의 똥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우리 해리 아랫도리가 찝찝해서 울었구나!”하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린 나는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뒷좌석 문을 열고 아기를 카시트에서 꺼냈다. 그렇지만 뒤이어 일어난 것은 내 기대와 달랐다. 해리가 앉아있던 카시트는 물론 해리의 핑크색 한복까지 노란 똥범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해리가 너무 많은 양의 대변을 본 탓에 기저귀가 감당할 수 없어 밖으로 똥이 새버린 것이다. 더욱이 우는 해리를 달래기 위해 안아드는 과정에서 나의 하얀색 원피스도 노랗게 물들어버렸다. 포장한 음식을 가지고 오느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남편은 노란색으로 물든 내 흰색 원피스와 뽕범벅이 된 카시트를 보며 ‘아…’ 하고 짧은 탄식을 내뿜었다.

일련의 사건을 수습하느라 도착이 조금 늦어져 먼저 우리 집에 계셨던 양가 부모님은 노란 뽕범벅이 되어 나타난 나와 해리를 보고 경악하셨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해리가 100일 기념으로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줬네.”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그날 식사를 마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뽕으로 점철된 카시트와 옷을 세척하느라 한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단한 일이다. 밤새 울면 잠도 못 자고, 모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주고… 눈을 뜨면 싹 틔 없이 하루가 돌아간다. 하지만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웅얼이를 하고, 내 얼굴을 보고 웃음을 지어줄 때는 육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진다. 더욱이 남편과 함께 해리를 돌보면서 각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전보다 공고해졌다. 앞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한 명의 성인으로 자라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남편과 오늘도 다짐한다.



I LOVE 아이



함 께  
자 라 는  
우 리



김 주 희

# 함께 자라는 우리

장려상 | 김주희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운 것들이 있다.

머릿속에서 잊혀 지지 않고 잔잔하게, 그러나 가끔씩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다. 어릴 적 아무 일도 아닌 듯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시간들이 어느덧 마흔이 가까워진 내 오늘의 하루에, 오늘의 인생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애타게 반기며 뛰어가던 내 눈동자에 비친 골목의 풍경, 우리 집 마당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을 한 참이나 바라보며 오늘은 엄마가 고기반찬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 아무 죄 없는 막내 남동생이 미워서 몰래 괴롭혔다가 혼난 일, 가을 운동회 때 아빠와 함께 이인삼각 달리기에 열심히 참여한 일.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보통의 일들이자, 천천히 내 인생을 물들여간 소중한 기억이다. 희미한 듯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유년의 추억들은 오롯이 나 혼자만이 만들어 낸 기억의 단상은 아닐 것이다. 그 중심엔 나의 부모님, 두 명의 동생.

우리 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시간은 정말 빠르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그토록 원하던 어른이 되고야 말다니. 어린 시절의 대체로 사소하고 소박한 추억들을 거름 삼아 나를 보통의 시민으로 잘 성장한 나는 어느덧 7살 딸을 둔 엄마가 되었다. 지금의 세상은 나의 옛 시절과는 무척이나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바라보는 애절한 마음과 사랑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지금 고백하건데 사실 처음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자그마한 생명체 하나에 다 쓰는 것이 억울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너무나 고생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보상받고 싶었다. 하지만 보상은커녕 엉망진창인 생활이 지속됐고 나란 인간의 밑바닥을 자주 마주했다. 울고만 싶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결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시절이었다. 허나 누군가 그랬던가? 자비로운 신은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다.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찬 시간 속에서도 작은 질서와 소소한 기쁨을 주시곤 했는데 그렇기에 나는 힘들어도 다시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평범한 우주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나의 분신이자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하였는데 그러자 비로소 눈앞의 희망이, 사랑이, 행복이 저 멀리서 아주 느린 속도로 한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았다.

비록 처음 하는 육아는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지만 차차 좋아졌다.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 할수록 초보터를 벗었다. 잠을 잘 못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급하게 볼 일을 보는 그런 일상이 다반사였지만 아이를 보면서 웃는 일도 그에 비례해 많아졌다. 그렇게 1년 정도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면서도 때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둘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하고, 스스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밤에 혼자 잠들 수 있을 때쯤 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피곤이 덜 했다.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다 보니 웬지 모르게 사랑과 애정이 더욱더 깊어진 것 같기도 했다. 아, 모성애란 처음부터 내가 지녔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의 화초를 기르듯 내가 직접 모성애를 무럭무럭 키워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서질 것 같이 작디작았던 아이는 가족의 보살핌으로 어느덧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어엿한 유치원생이 되었다.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다. 이제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도 꽤 있다. 나 역시 초보엄마에서 이제는 조금 편안하고 능숙한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의 긴 나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눈앞에서 훌쩍 큰 아이의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신기할 따름이다. 나 역시 그간 엄마로서 또 다른 성장을 한 것 같아 놀라울 때가 많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육아로 인해 힘들긴 했어도 마음속 언저리가 참 따뜻해진 시간들이

었다. 두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고, 셋이 된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너무 많은 욕심 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를 배우는 삶을 꿈꾼다.

키가는 딸에게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어릴 적 내 부모님이 그러했듯) 우리가 보내는 이 평범한 하루가 매일 특별한 일로 가득차지 않더라도,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 그 자체가 훗날 한 인간의 충분한 정서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가족의 유대감을 충분히 느끼며,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에 앞서 나부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지. 앞으로의 인생이 더 충만해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하지만 가끔 내가 이렇게 누굴 가르치고 길러낼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난 그만큼의 사람이 아니다. 늘 내가 먼저였고, 육아란 내가 내 삶을 희생하며 모든 걸 쏟아 붓는 것이라 생각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제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 보려 애쓰고 있는 내가 보인다. 내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다가 오히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그래, 맞다. 네가 엄마를 성장시킨다. 너도 부모를 키운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있다.

시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흐를 것이고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딸이 독

립된 성인이 되어 서로의 물리적 거리가 예전보다 한참 멀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함께한 시간들  
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되어 줄 것이다.

훗날 사회의 멋진 일원이 될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중에 시간이 많  
이 흘러 네가 받은 사랑을 잘 나눠주길 바란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보낸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앞으로 너에게 영영 그림고 마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결혼이란  
제도에  
무일수 있을까?

김주희

# 결혼이란 제도에 뭉일 수 있을까?

장려상 | 김주희



한국 나이로 서른을 넘기고, 내 인생에서 가장 흥겨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정된 소득과 시간이 있으니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나이였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았다. 혼자 살았기에 부모님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2016년 2월 34살, 3월에 새로운 직장과 직업으로 이직할 예정이었다. 8년 차를 맞이했던 나의 첫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삶과 달랐다. 내 뱃속에서 길러져서 세상 밖으로 나와 성장할 아이가 궁금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혼을? 내가? 다른 가족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절대. No. Never. 현 가족만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가족을 늘리고 싶지 않았다. 혼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볼까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서가 풍파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기에 재빨리 생각을 거두었다. 난 어렵게 살고 싶지 않다. 단순하게 살아가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남아 있는 연차로 제주도를 혼자 여행하였다. 동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나였는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커다란 몸집과 다르게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흥길동 같았는데 이상하게 조금만 걸어도 몸이 천근만근했다. 필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음이 틀림없었다. 남은 기간이라도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약을 먹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28일 주기로 정확했던 생리일의 변화를 감지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내가, 3월에 이직하는 내가, 임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히 자연스러웠고 거부감이 없었다. 현실감이 없었던 걸까? 놀라거나 서둘러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지 않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주문했다. 다음날 바로 온 건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구남친현남편이 설명절에 회사에서 받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 도중에 택배가 왔었다. 아무렇지 않게 택배물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임신을 확인했고, 고기를 굽는 그의 눈앞에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티비를 보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점심은 무엇을 먹고 싶으냐는 그의 물음에 국밥이 먹고 싶어 식당으로 갔다. 그는 물었다. 언제 알았냐고. 여행 갔을 때 몸이 이상하더니, 예정일에 생리를 하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주문해봤다고 했었다. 그는 물었다. 넌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냐고….

그 때 터졌다. 내 안에 간혀 있었던 눈물이 쾅! 하고 터져 나왔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몇 년 동안 했던 공부인데, 내가 이제 새로

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 이때?!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건데, 여행가서 약도 먹었는데, 준비 안 된 엄마의 뱃속에 생겨난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근데 저 자식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아무렇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눈물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와 식당을 나왔다. 그도 갑작스러웠겠지. 우스갯소리로 이전의 여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더 놀고 싶어서 헤어졌다고 했었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자신이 결혼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34살 동갑, 결혼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 나이였지만, 1여년의 연애 기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저녁은 돼지껍데기를 먹으러 갔다. 왜 그게 먹고 싶었는지. 그는 후에 말했다. 그곳에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맥락 없는 결심이었지만, 앞으로의 일정을 빠르게 계획했다. 1년의 연애기간동안 친구들이 같이 만나자고 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친구들 모임에 그를 데리고 가지도 않았었는데, 아이가 생겼음을 아는 그 순간 그와 당연히 결혼한다고 생각했다. 나도 몰랐던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지.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우리 부모님과 먼저 만났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갔기에 엄마는 결혼할 사람이라고 짐작은 했었다. 긴장한 신랑이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임신소식을 알렸을 때, 아버지는 방으로 잠시 들어가셨다. 하지만 엄마는... 나는 분명히 보았다. 엄마의 입꼬리가 좌우로 올라가는 것을. 서른 중반이 되도록 결혼 생각도 없고, 새인생 살 거라고 직장까지 옮기는 딸이 걱정이

었는데, 결혼에 손주까지 함께 해결해서 가지고 오니 그 기쁨을 감출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 혼전임신을 알려야하는 것에 많이 부담을 가졌던 신랑은 잠시 당황했지만, 방에 들어가셨던 아버지가 곧 나오셔서 술을 한 잔 부어주셨고, 남동생도 경사라면서 엄마와 함께 신랑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해서 편하게 첫인사를 마무리 했었다.

시아머니와의 인사자리도 좋았다. 기독교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아들이 중국까지 출장을 갔는데도 모를 정도로 서로 연락이 없는 자유로운 가족 분위기를 알았기에 그와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도 남동생이 있었는데, 창원이 좁은 동네이다 보니 나의 남동생과 같은 친구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 다 친구지 하는 분위기로 사돈이 아닌 친구사이가 되었다.

새로운 직장에는 3월 중순에 임신과 결혼을 알렸다. 신입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리는 불편할 수 있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상사가 나의 두 손을 잡으며 축하한다고 해주셨다. 상사는 임신을 하기가 어려워 많은 고생 끝에 아이를 가졌었다며 나의 임신을 오히려 더 기뻐하며 받아주셨다.

복이라고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다. 새로운 직장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결혼 준비를 하거나 배가 불러도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이 친정 엄마의 소유였기에 그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결혼식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예물과 혼수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뺐다. 첫 결혼이었기에 엄마는 해주고 싶은 것이 많으셨지만, 신랑이 거절했다. 그

래도 그때 엄마가 해주다던 금목걸이를 받지 않은 건 금값이 많이 오른 지금 조금 아깝다.

그렇게 나의 2016년은 이직, 임신, 결혼, 출산까지 인생의 큰 과제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던 한 해였다.

귀한 우리의 보물, 그 아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 태몽이란 것이 평소와 다른 느낌의 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총 네 번의 태몽이 있었다. 첫 태몽은 공교롭게도 임신 전 나의 친구가 꿔다. 내가 하얀 눈발 위에서 차가운 눈에 덮일 정도로 구르고 있어서 나오라고 소리쳤는데, 안 나오더라. 뜬금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신을 알고 난 후, 나의 아이는 ‘하양이’라는 태명을 가졌다. 눈과 같은 하얀색, 어느 색으로도 물들 수 있는 하얀색. 두 번째, 세 번째 태몽은 내가 꿔다. 나방이 나의 품으로 날아오더니 나비로 변해 날아가고 강에서 모래를 퍼 올렸는데, 보석들로 변하며 흘러내렸다. 판타지 모험 같은 격렬한 꿈을 많이 꾸는 나이기에 신비한 느낌이 들었지만, 두 개의 꿈 모두 내 손에 남아 있지 않아서 속상했다. 네 번째 태몽은 꿈을 잘 꾸지 않는 아이의 아빠가 꿔다. 자기의 열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여져 있어서 손을 꼭 움켜쥐었다고, 드디어 손에 잡힌 아이라서 계속 잘 잡고 있으라고 격려했었다.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에 감탄하던 순간들이 지나고, 빨간 나뭇잎으로 거리에 줄이 그어질 때 우리의 아이는 태어났다. 예정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병원에서는 억지자연분만을 하도록 약물을 두어 번 투입했다. 자궁문은 열리지 않고 뱃속 아이의 심장박동만 느껴졌다. 자궁문을 조금도 열어주지 않았던 건 뱃속에서 조금 더 있고 싶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제왕절개를 해서 2016년 11월 1일,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다.

임신 중 군대를 보내야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흘림에 아이 아빠는 표나게 얼굴을 굳혔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그였기에 딸이라면 조금이라도 애정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단다. 그런 기대가 무너졌으니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섭섭하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 그를 알기에 가끔 놀려먹는 이야깃거리로 만들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이를 처음 봤을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찡글찌글한 얼굴을 보는데도 반짝였다고 했다. 신기하게 특별해 보였다고 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자신에게 눈물이 많았음을 알았다. 텔레비전에 아이와 관련된 뉴스나 영상을 보면 울적한다고 한다.

지금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가 없었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이만큼 충만한 행복감은 아니지 않았을까?

나란 인간에게 이 정도의 검은 마음이 있었든가 싶을 정도로 내 속을 가끔 뒤집기도 하지만, 나 외의 타인을 통해 내가 반짝여질 수 있음을 아이가 알려주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무한 신뢰, 무한 사랑을 퍼부어 주는 이 아이가 있기에 나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이 되어보려 노력하고 있다.

아이 아빠의 장기출장은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고, 주의를 요하는 아이의 병변과 원가족의 장기 입원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하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앞서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에 입학  
을 하고,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다시 나 ‘김주희’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인생 2막? 3막? 4막? 몇 번째 막이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커튼은 열  
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결혼으로 인해, 육아를 통해 또다른 내 자아의  
빈곳을 채워가면서 내가 나 임을 잊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몇 십년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족이 합쳐지면서 겪지 않아도 될 걱정과 문  
제가 생겨나기도 했지만, 몇 십년동안 함께 살아온 내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  
다.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  
정하면서 계속 맞춰나가야 하는 것 같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눈을  
감아도 될 것 같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그 세상이 검게도 빨강게  
도 노랑노랑하게도 보인다.

결혼이란 제도에 날 묶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 구남친과 그의 가족들, 우  
리의 아이를 나에게 묶어놓았다. 내편을 늘리고, 나의 세력권을 넓혔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닌 나의 편과 함께, 나의 세력권을 더 넓히기 위해 앞으로 나아  
갈 것이다.





학 부 모 라는  
의 자 의 자 리



김 해 민

# 학 부모 라는 의 자 의 자 리

장려상 | 김해민



하늘거리는 연분홍빛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굽이 높은 진주빛 구두를 신고 현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밝고 화사하고 예뻐다. 화려한 옷과는 섞일 것 같지 않은 내 표정과 마주하였다. 이내 나는 신데렐라가 마법이 풀린 듯 진주빛 구두를 벗고, 원피스를 어두운 옷장 안에 다시 넣어 놓았다. 그 대신 회색의 긴 정장 바지와 라인이 잡힌 검은 블라우스를 입었다. 내 표정에 알맞은 옷차림이다. 진심으로 누구에게든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공개수업 날이다. 아들 학교 가는 오르막길 이 오늘따라 더 가파르게 느껴졌다. 학부모 공개수업의 설렘보다는 누르고 눌러도 비집고 튀어나와 맴도는 걱정만이 가득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가을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조차도 이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부모가 되어 느끼는 깊은 감동 중 하나는 자녀의 공개수업이나 발표회에 참

석하는 것. 품 안의 자식이 내 품을 떠나 무대에 서서 나를 마주 보며 울동을 하고 늠름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연이 있을까. 애석하게도 우리 부부에게겐 지금껏 이런 황홀한 경험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아들이 5살 무렵 어린이집에서 학예발표회가 열렸다. 학부모 자격으로 초청된 첫 발표회였다. 남편과 나에겐 부모로서 감격스러운 첫 경험이었기에, 멋들어지는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었다. 남편은 검지만 고급스럽게 푸른빛이 감도는 양복과 끝이 뽕죽한 구두를, 나는 큐빅 단추가 화려한 체크무늬 원피스와 굽 높은 진줏빛 구두를 사서 신었다. 렌즈가 긴 카메라까지 챙기고 우리는 그렇게 학부모로서의 첫 황홀함을 느낄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

어린이집 발표회는 인근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꽃 풍선들이 가득한 무대와 감쪽한 머리띠와 빨간 유니폼을 맞춰 입은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아이들도, 부모들도 설레는 공기가 가득했다. 새 옷까지 차려입은 우리 부부 또한 설레는 행복에 젖고 있었다. 단, 한 사람. 아들만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아들은 어린이집 발표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고함을 질러댔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두 다리를 쭉 뻗고 거의 바닥에 앉아 버릴 듯 엉덩이를 뒤로 빼며 몸으로 완강히 거부했다. 아들의 소리를 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달려와 아들의 이름을 반갑게 불렀지만 평소 모습이 아닌 빨간 옷으로 변장한 선생님을 본 아들은 더 기겁하여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사실 5살 아들은 처음 가는 장소를 무척 낯설어했다. 새 장난감도 바로 만지는 법이 없었다. 새로 산 옷도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입을 수 있었다. 그런 아들이기에 처음 맞닥뜨린 발표회장에 들어갈 리 만무했다.

주변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시선은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길바닥에 누워서 버둥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들과 이를 말리는 우리 부부는 재미난 구경거리가 되었다. 공들여 만진 머리카락은 엉쿨 마냥 헝클어졌고 곱게 다림 질했던 내 원피스와 남편의 양복은 구겨지고 아들 운동화에 땀혀 얼룩투성이였다. 화려한 옷과 뽀족하고 높은 구두는 이런 우리를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이날이 학부모로서 우리 부부의 첫 모습이었다.

공개수업 플래카드가 걸린 학교 교문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검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남편이었다. 10년 차 부부가 되니 남편의 표정과 얼굴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다. 나 못지않게 남편의 불안이 얼굴 곳곳에 정확히 묻어 있었다.

“안-안-녕-하-세-요-오-오-?”

학교 건물을 들어가자 휠체어를 탄 한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인사했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거의 누운 듯 몸이 비틀어진 여자아이는 몸시 불편해 보이는 자세였지만 표정만은 꽤 밝았다.

“안녕, 예뻐야. 인사해 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숙여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예쁜이 휠체어 뒤를 한 남자아이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 아이는 허공을 응시하며 짹 찌진 왼손을 얼굴 옆으로 쉴 새 없이 흔들며 걸었다. 더불어 “우-우-우-”라며 짧게 끊기는 소리를 내면서 터덜터덜 목적지가 궁금한 걸음걸이를 계속했다.

“꼭 우리 아들 같네.”

찰나였지만 남편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나 보다. 터덜터덜 걷던 아이는

갈 길을 잃었는지 서성이다 결국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교실로 걸어갔다. 익숙한 광경이지만 볼 때마다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특수학교의 모습이다.

“어머니, 아이가 집에서는 눈을 잘 맞추나요?”

발표회장을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뒤집어져 울기만 했던, 그 기막힌 첫 학예발표회 다음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올 것이 왔구나. 처음 아이를 키웠지만 아들의 행동은 뭔가 다름을 엄마의 축은 느끼고 있었다.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까지도 그 이상함을 감지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던 비밀이 발각된 듯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로부터 8개월 뒤 부산의 저명한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 잔인한 비밀을 확인시켜 주셨다.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도 많은 눈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며칠, 몇 달간을 토해내듯 울었다.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쳐봐도 바뀌는 건 없었다. 그렇게 ‘자폐’는 우리 가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되었다.

6살 재롱 발표회에서는 율동 음악을 틀자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힘들었던 아들은 자기 몸보다 큰 스피커를 발로 차며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7살 부모 참여 운동회에서도 체육관에 걸린 장식이 싫었는지 만국기를 뜯으려 하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이때부터 우리 부부에게 자녀 참여수업이란 난리를 피우는 아이를 검거하듯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주변 부모들의 연민이 섞인 따갑고 고통스러운 시선은 언제나 뒤따라왔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화려한 옷보단 튀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옷을 입는 편이 훨씬 나았다.

특수학교 아들의 교실은 2층이었다. 3학년 2반에는 5명의 아이들이 옹기종이 모여있었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은 우리 부부를 쳐다보았다. 아

들도 고개를 들어 우리와 눈을 마주쳤다.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학교에 오기 전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상상했다. 우리를 보고 뒤집어질 듯 운다면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아들을 낚아채듯 데리고 나오면 된다. 수업하기 싫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밀어버린다면 그전에 달려가서 팔을 잡고 막으면 된다. 늘 긴장이 되는 순간이다.

아들은 알듯 말듯 모호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돌려 칠판 앞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살짝 결눈으로 우리를 살피던 아들은 다시금 칠판을 쳐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조용함에 당황한 남편과 나는 교실 뒤편에 학부모라고 적힌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아들은 우리가 앉는 모습을 봤지만 다시금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처음으로 앉아보는 학부모의 의자였다.

학교 공개수업 내용은 ‘표정’에 대한 수업이었다. 당연히 우는 아이를 데리고 나올 요량이었던 우리 부부는 교실 뒤에 앉아 생경한 아들의 수업을 보고 있었다. 자녀는 앞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부모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당연한 이 구도가 우리에게겐 이상하리만큼 감격스러웠다.

아들이 갑자기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남편과 나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아들은 칠판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선생님의 지시에 맞게 눈코입 그림카드를 붙이고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아들은 뒤돌아서 우리를 한번 쓱 쳐다봤다. 나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를 짓고, 남편은 양쪽 엄지손가락을 연신 치켜 올리며 3미터 앞에 있는 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했다. 아들은 모호한 표정을 보여주더니 이내 앞으로 몸을 돌렸다. 다리에 힘이 살짝 풀렸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니 이 사람도 감동했는지 요즘 들어 보지 못했던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남편과는 7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순간이 있다면 공원에서 연애하던 중 만난 이름 모를 남자아이들 때문이다. 4살, 6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무척 좋아했던 남편은 “삼촌에게 패스!”라며 오지랖을 부렸다. 그렇게 신나게 꼬맹이들과 공을 주고받는 남편을 보며 저 아이들이 내 아들이고 저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런 단순하고 평범한 상상 하나로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그 단순한 상상은 절대 단순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았다. 자폐아들에게 공은 전혀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공을 받지도, 던지지도, 차지도, 가져오지도 않는다. 아들과 공 놀이를 하는 남편 대신 아들의 버둥거리는 몸을 붙잡는 남편, 아들의 고함을 달래는 남편, 아들의 손톱에 긁혀서 팔과 얼굴 곳곳 상처로 가득한 남편, 시끄럽다는 주변 사람에게 말에 늘 고개 숙여 사과하는 남편을 보는 게 익숙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닌 복잡한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런데도 핏줄이 무서운 건지, 우리 부부는 아들이 너무 귀여웠다. 자폐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한계에 도전할 만큼 말썽을 피우고, 이해되지 않은 무논리로 일상을 어지럽힐지라도 아들은 너무 이상하리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결혼 전 항상 모범생으로 살던 우리 부부가 지난 10년간 제일 많이 한 말은 ‘죄송합니다’였다. 어린이집, 학교 선생님에게도 죄송하고, 엘리베이터 동네 어른들에게도 죄송하고, 친구 부모님에게도 죄송하고, 아들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 치욕스러울 만큼, 가슴을

후벼 팔 만큼 엄청나게 죄송할 일들을 쏟아내는 아들이지만 남편과 나는 그런 내 새끼가 몸서리칠 만큼 예뻐다.

아들의 볼 뽀뽀보다 맛난 걸 맛본 적이 없었다. 찌엄찌엄 어설픈게 부른 동요만큼 감동적인 명곡이 없었다. 아이를 품 안에 꼭 안는 것만큼 내 영혼을 꼭 채우게 하는 경험은 없었다. 부드러운 볼을 비비고, 통통한 엉덩이를 두드릴 때 이보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생명체를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갓은 수모’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할 것이 없는 힘겨운 발달장애부모의 삶이지만 이를 드러내며 넘어가듯 깔깔 웃는 아들의 웃음 하나면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용서되었다.

평동!

수업이 마치는 종이 울렸다. 4분 만에 우는 아들을 데려 나올 생각을 했던 우리 부부는 40분을 학부모 의자에 앉아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물론 아들은 의자가 불편하면 일어나서 몸을 털털 털고선 다시 앉는, 모범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산만한 학생이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서 활동하는 것을 처음으로 지켜봤던 우리 부부에게 대-대-대-만족스러운 공개수업이었다.

“이렇게 잘 앉아있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차려입고 올 건데!”

싱글벙글 웃으며 남편은 오랜만에 넋살을 피웠다. 공개수업이 끝나고 아들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다. 밀고 당기는 난리 블루스가 아닌 의젓하게 엄마, 아빠 양손을 잡고 스스로 걸어서 말이다. 교문을 나오자 남편과 나는 우리를 휘감고 있던 이름 모를 감정이 사라졌는지 갑자기 웃음이 났다. 뜻도 모를 엄마 아빠의 웃음에 학교 땡땡이 친 아들도 씨익 웃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무적의 웃음이다.

내년 공개수업에는 연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굽이 높은 진줏빛 구두를 신고 오기로 남편과 다짐을 했다. 내년엔 꼭 그런 모습으로 학부모 의자에 앉아보고 싶다.



I LOVE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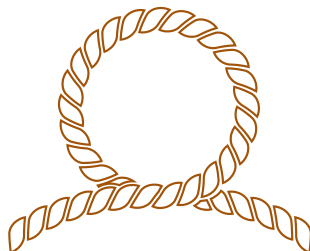
동 앓 줄  
(나 의 동 앓 줄)



윤 주 리

## 동 앓 줄 (나의 동 앓 줄)

장려상 | 윤주리



29, 아홉수다.

이때의 나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해야만 했다. 7년 넘게 사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섰다.

이상하리만큼 서른을 넘긴 다는건 나에게 뭔가 큰 짐이 된 것만 같고 계속 사귀어야 하나 마무리 지어야 하나 고민하다 앞으로 어쩔 것인지 이야기를 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 먹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프로포즈를 했다.

식상한 프로포즈.... 그는 집 근처 오래된 레스토랑에서 꽃다발과 나와 함께 샀던 패션 보석세트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다. TV에서나 보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기대했던 나였기에 너무나 식상하고 실망스러웠지만 그 때, 받은 게 어딘가 하며 또 합리화를 했다. 아무튼 스물아홉의 우리는 결혼 준비라는 걸 하며 설렘으로 시작했다.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었던 나는 아름다운 상상만 했던 것 같다.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은 좌절과 갈등을 거듭하게 됐고 사랑과 전쟁을 한편 찍게 됐다. 결혼은 현실이었고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들을 마주하며 엮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나는 기로에 섰다.

갈등을 해결 해가며 여차저차 결혼 준비는 이어졌고 결혼식과 신혼여행이라는 부푼꿈에 갈등은 점점 덮여져만 가는 듯 했다. 지나고 보니 덮였다기보단 덮은거였고 꽃길만을 그렸던 듯 하다.

결혼식 일주일 전,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남자친구 부서에서 연락이 왔다.

남자친구가 쓰러졌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모른채로 병원에 갔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비타민 링거를 한 대 맞고 신혼집으로 갔다. 아무리 봐도 상태가 정상이 아닌 듯 하여 예비 시어머니를 호출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다. 의사가 오더니 뇌출혈이라고 한다. 몰랐던 자초지종을 후에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는데 계단에 앉아있다 옆으로 쓰러진 것 같다고 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곧 결혼식이 이어질거고 행복의 꿈을 그리며 신혼여행을 가야 하는데 결혼식만큼은 안되겠나니 행진 중 쓰러지면 장담을 못하고 비행기를 탔다가는 뇌가 부풀 수도 있으니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한다.

정말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이런걸까.... 남자친구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나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 준비했던 걸 취소하며 주위 지인들에게 취소 연락을 돌렸다. 나름 최선을 다해 연락을 돌렸는데 결혼식 당일 방문했던 지

인들이 몇몇이 있어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일상은 이어졌고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

내 마음이 무너진 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신혼여행을 준비 하기 위해 시켰던 택배들이 쌓인다는 것이었다. 그 택배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다가 또 고민을 하다 정답이 없는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부턴히도 나와 싸웠다.

그리고 7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한 동반자 아닌 동반자와 다시금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관계의 포기를 할 것인가라는 세 번째 기로에 섰다.

한날은 병문안을 다니며 그에게 내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완벽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를 보고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호전된 남자친구가 퇴원을 했고 다시금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으며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으며 부부가 됐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시작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지원, 시댁에서 세를 주던 몇십년이나 된 15평 짜리 주택을 부분 공사해 신혼 생활을 했다. 바닥이 금가고 벽이 금이 간 그 공간을 퇴근 후 저녁시간과 주말마다 우리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내부와 외부 페인트를 손수 칠해가며 완성했고 마지막으로 우체통을 다시금 칠하여 우리 부부의 이름을 썼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해피하우스라고 적으며 행복을 꿈꿨다. 또 한날은 길을 지나던 어르신이 우리를 페인트 업자로 오해하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네’ 하셨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의 나는 억척스러우리만큼 아끼고 아꼈고 열심히 살았으며 그 다음 해에 사랑의 결실인 우리 아이를 잉태한다.

젊은 나이만큼이나 별이가 적었던 우리 부부의 월급으로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맞벌이를 계속 이어 나갔고 출산 2주 전까지 근무하다 아이를 낳았다. 손이 붓고 다리가 붓고 입덧에 시달리던 그 시기의 나는 임신 소양증으로 피부가 뒤집어져 밤마다 긁어댔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가려움이 사라졌다.

신기하리만큼 이상한 경험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나는 누구나 다 모성애라는게 넘쳐나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울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자는건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나도 예민했고 울고 보챘다.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던 집 안에서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단절된 채 우울증이 찾아왔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쁜 생각까지 했을 정도 였어서 우울증이 굉장히 세게 왔다.

내가 유일하게 기다리던 남편의 퇴근시간.... 하루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던 나는 남편과 아이를 달래다 지쳐 밤마다 카시트에 태우고 온 동네로 드라이브를 다녔다. 그러다 아이가 잠이 들면 잠든 아이를 진땀을 빼며 눕히고는 남편과 나는 지질 때로 지친 채로 쪽잠을 잤다.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남편도 나만큼이나 피곤했을 것이다. 그때의 남편과의 드라이브는 나에겐 동앗줄이었고 삶의 의지였단걸 말하지 않았지만 참 고마웠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자랐고 나의 모성애도 점점 자라났다. 나는 점차 육아 스킴이라는게 생겼고 육아휴직 중이라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산여성회관 장난감 대여점이나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서 드림을 받아 장

난감 값을 아끼며 키웠다. 차곡차곡 모아지는 통장 잔고 만큼이나 집에 대한 갈망도 쌓였고 한 푼 두 푼 열심히도 모아 우리는 그 좁은 집을 탈출 해 운 좋게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렇게 2년이 지난 뒤 드디어 우리 집을 갖게 됐다. 은행 대출로 이루어진 우리집이었지만 드디어 자가가 생겼고 좁은 집에서 가구를 이리저리 배치 해 가며 용을 쓸 필요가 없게 됐다.

집 매매 계약서를 적은 그날 저녁의 공기를 잊을 수 없다.

우리 셋이 식당에서 잔을 부딪히며 열심히 살자. 할 수 있다 맞벌이! 서로를 독려하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 순간이 벌써 어느덧 4년 전의 일이다.

4년 전의 나는 지금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 조금씩 가사분담을 하며 현재를 이어가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제일 큰 숙제였던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적응이 지나고 어느덧 9살이 됐고 나에게 가끔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주는 아이다. 많은 경험을 통해 아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찾게끔 만들어 주자는 우리 부부의 신념 아래, 우리 아이는 착한 심성만큼이나 바르게 잘 자라고 있어 주어 늘 고맙다.

남편도 그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출근해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지만 나와 아이에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다. 주말도 출근하는지라 피곤할 만도 한데 최대한 우리와 시간을 보내려 하고 함께 여행도 자주 간다. 함께 한 세월이 20년이 되어가니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어 그 물들이 당연한 듯 이어진다. 잉크가 번지듯 서로에게 번져 물들었다. 우리에겐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퇴색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남았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그 안에는 추억

과 격려 그리고 행복의 기억들이 남아있다. 돌이켜 보면 내가 잡고자 했던 그 동앗줄이 내 생명을 잡아주는 매개체였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른 아 닌 남편과 아이였던 셈이다.

나를 지켜준 동앗줄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다.

과거의 내가 그 동앗줄을 열심히 잡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영위하지 못 하는 삶이기에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대서사에 행복한 해피엔딩이라는 마침 표를 찍고 싶다.



I LOVE 아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가족!



정 선 희

#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가족!

장려상 | 정선희



오늘도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심가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2018년 뜨거웠던 여름,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비밀연애 4개월 후 서로의 강렬한 끌림 끝에 결혼에 골인 했고 그해 겨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처럼 찾아온 기적, 첫째 아들을 만났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짧은 연애기간과 짧았지만 열정 만큼은 불타올랐던 만남 속에 배우자의 성향을 온전히 알기란 부족한 시간이었다. 매일 매일 결혼생활이라는 낯선 문화에 하루 하루 적응해 나가야만 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기에 사소한 다툼들도 많았지만 그 다툼도 어느새 추억으로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달콤했던 신혼생활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 채 육아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그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루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어 쓸 만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살고 있었고 그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아들이 나를 향해 웃어주는 미소였다. 나의 고됨은

아들의 미소로 씻은 듯 사라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앞만 보고 살아온 난 첫째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3개월의 출산휴가 끝에 바로 복직을 하여 일을 하였다.

육아와 사무실 일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에 젖어 살던 우리에게 2020년 가을, 선물같이 둘째가 찾아왔다. 밤낮이 바뀐 생활 속에서 나의 몸은 피폐해져 갔지만 남편과 토닥임과 격려 속에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고 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7세, 5세가 되었고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 저출생 시대에 도래하여 현재는 두 자녀 출산도 다자녀라고 불리우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산 캠페인을 비롯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에 앞서 제일 큰 문제는 삼포 세대의 확대라고 나는 생각한다. 삼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청년층의 세대를 일컫는 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삼포 세대의 은둔형 청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응답 이었다. 자신의 가난을 되물림 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이다.

나 또한 결혼 전을 돌이켜보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부담감과 출산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던 것 같다. 그 고민의 기억도 이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나는 어느덧 결혼 6년차, 사랑스러운 아들 둘과 남편 사이에서 요즘 스스로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매일 사랑을 힘껏 그리고 마음껏 표현하는 것에 있다. 사랑은 표현해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기에 매일 매일 남편과 아들의 귓가에 속삭인다.

“나를 살게 하는 힘,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이다. 우리 네 식구 삼가네는 매일 하루도 놓치지 않고 가지는 시간이 있다. 단 10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장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시간이다.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네 식구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잔잔하게 스며드는 시간, 이 저녁 시간의 10분을 통해 하루의 피곤을 잊고 다시 희망찬 내일을 살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얻고 잠이 든다. 곧 2024년 8월 12일 뜨거운 여름, 6주년의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우리 가족에게 세 번째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

내 나이 38세 현재 임신 10주, 태명은 튼튼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튼튼하게 자리 잡아 세상 밖으로 나올때까지 건강하게 만나자고 형아들이 마음을 다해 지어준 이름이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형아들이 튼튼이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자녀 1명 내지 2명이 거의 고정화된 사회에서 셋째를 무탈히 키울 수 있을지 수백번의 걱정과 고민 끝에 찾아온 생명을 감사히 받아 들이고 우리 가족은 2025년 1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벅찬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각기 다양하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연관

되어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 이 글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매일 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각박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속에서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며 감사하게 하루를 무탈히 보내며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심가네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야말로 나를 제일 가슴 벅차게 하며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나의 유년시절을 돌이켜보면 일란성 쌍둥이의 언니이자 연년생인 남동생 이렇게 삼남매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며 지내왔던 것 같다. 물론 세명에서 다툼적도 많았지만 30대 후반인 우리는 그때 그 유년시절의 추억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다섯명이 된다면 제반되는 경제적 부담감은 물론이거니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으로 질 높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의 정책들은 영아기 및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들도 충분히 호평을 받고 있지만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 식비, 학교 방학기간 중 가족 여행경비 등등 경제적 지출이 영아기 및 유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막대하다.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항상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다. 학령기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 나 또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학을 앞둔 아들을 있어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된다. 단적인 예로 내년엔 우리 가족이 다섯명이 되어 여행을 간다면 막상 갈 수 있는 호텔은 패밀리 호텔을 제외 하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부딪칠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오히려 기준을 최대 4인이 아닌 5인으로 늘리고 다자녀 혜택을 더 부가

하여 숙박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더 제공 한다면 마음 놓고 예약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리하게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창원시에서 더 모범적으로 다자녀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오늘도 뱃속 아가 튼튼이에게 속삭인다.

“엄마, 아빠에게 와주어서 한없이 고마워.”

요즘 아들 둘을 보며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내가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더 돌아보게 하고 나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말이다. 오늘도 우리 심가네 가족의 행복지수는 단연 높다고 외치며 6년의 결혼생활 동안 긴 여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다섯 식구에게 펼쳐질 행복, 웃음, 희노애락을 그려보며 이 글을 마친다.





2024년 창원시 수필공모전

# 「I love 아이」

수상작품집

